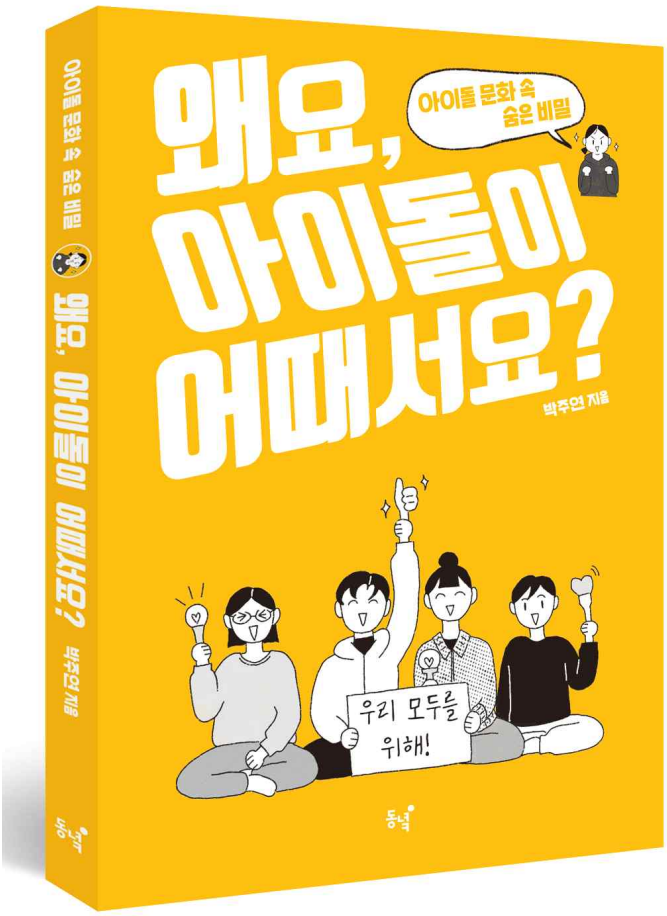
독서지도안

책 제목	왜요, 아이돌이 어때서요?	지은이	박주연 글 / 김가지 그림	출판사	동녘
학교		학년/반		이름	

왜요, 아이돌이 어때서요?

아이돌 문화 속 숨은 비밀



#청소년교양 #아이돌덕후 #덕후가세상을바꾼다 #아이돌로세상읽기

〔책소개〕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이 실망을 안겨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덕질과 사생활 침해의 경계는 어디일까?’ 아이돌 덕질은 우리 삶에 기쁨과 설렘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고민거리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성 역할 고정관념, 외모지상주의, 소비자주의, 청소년 연습생의 노동권, 팬덤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케이팝 아이돌과 팬덤 문화를 둘러싼 이야기를 두루 살펴봅니다. 아이돌 덕질의 다양한 장면과 그 뒤에 숨은 흥미로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깊어집니다. 더불어 건강한 팬덤 문화를 이어 갈 지혜도 얻을 수 있지요. - **태지원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그동안 수많은 팬의 목소리를 환경 캠페인에 담아냈지만, 늘 무언가를 놓친 듯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책은 그 불편함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극단적 다이어트, 사생활 침해, 문화적 전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활동가이기 전에 한 명의 케이팝 팬이고, 최애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가 더 나은 환경에서 오래 활동하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돌 덕후라는 것을요. 케이팝을 사랑하면서 그 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최애를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요. 환경도, 성평등도, 문화적 존중도 모두 그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입니다. 이 책은 내 최애가 살아갈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아이돌 팬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

“아이돌은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케이팝 아이돌 문화로 사회를 읽는 청소년 교양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아이돌은 오늘날 청소년 문화의 중심에 있다. 무대 영상과 댄스 챌린지, 팬 사인회 콘텐츠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많은 청소년에게 아이돌은 롤모델이자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팬들은 아이돌의 이런 다양하고 화려한 음악과 무대를 통해 설렘과 즐거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은 때때로 복잡한 질문을 남긴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논란에 휩싸일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팬의 응원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은 ‘연애 감정’일까?’ ‘남돌과 여돌은 무엇이 다를까?’ ‘아이돌처럼 예뻐질 순 없을까?’ ‘앨범을 잔뜩 사고 버려도 괜찮을까?’
《왜요, 아이돌이 어때서요?》는 ‘돌덕판’의 익숙한 장면에서 출발해 십 대의 삶 깊숙이 들어온 아이돌과 팬덤 문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끄집어내고 케이팝 아이돌 문화와 팬덤을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 산업 구조로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낸다.

〔브레인스토밍 하기〕

1.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 궁금하다
☐ 웃기다
☐ 불편하다
☐ 아이돌이 생각난다
☐ 잘 모르겠다

2.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나요?

☐ 아이돌 자랑 대회
☐ 아이돌 안티
☐ 아이돌 문화 비판
☐ 아이돌 소개
☐ 잘 모르겠다

3. 표지 속 인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 굿즈 꾸미기
☐ 누군가를 응원하기
☐ 체육대회
☐ 장기자랑
☐ 예능 촬영

4.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나요?

☐ 혼내는 책
☐ 설명해 주는 책
☐ 같이 생각해 보는 책
☐ 내 편이 되어 주는 책
☐ 잘 모르겠다

5. 이 책을 읽기 전, 내 마음은?

☐ 이야기 나누고 싶다
☐ 괜히 긴장된다
☐ 재미있을 것 같다
☐ 별 기대 없다
☐ 궁금하다

〔독서 전〕 책 표지 보며 내용 예측하기

1. 인물들은 모두 응원봉을 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수건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② 누군가를 응원하고 있다.
③ 다 함께 요가를 하고 있다.
④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있다.

2. 인물들은 응원봉 외에도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요. 이 플래카드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옆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어서이다.
② 눈에 띄고 싶어서이다.
③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이다.
④ 미술 시간 숙제를 위해서이다.

3. 부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 책의 부제는 '아이돌 문화 속 숨은 비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돌 문화는 무엇인가요? 행사인가요, 혹은 이벤트 상품인가요? 팬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다양한 아이돌 문화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요.

'아이돌 문화'를 모두 골라보기
☐ 팬 사인회
☐ 포토카드 교환
☐ 문제집 풀기
☐ 신곡 스트리밍
☐ 응원봉 사용하기
☐ 축구 동호회 가입하기

위에서 언급된 '아이돌 문화'를 겪어 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어땠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책 속으로〕

1장. 여돌과 남돌은 뭐가 달라요? :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하여

요즘 케이팝 아이돌에게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세계관'이야. 각 그룹마다 마치 영화처럼 배경 스토리와 각 캐릭터가 가진 서사나 특징이 있거든. 이 세계관을 분석하고 발매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그에 맞춰 해석하는 것 또한 팬들에겐 소소한 재미야. 근데 이 세계관에도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혹시 에이티즈나 엔하이픈의 뮤직비디오를 본 적 있니? 에이티즈는 감정이 통제된 세상에서 정부군에 맞서 싸우는 해적이 되어 혁명을 일으키고, 엔하이픈은 피를 갈구하는 뱀파이어가 되어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해. 남돌의 세계관은 마치 SF 액션 영화나 어두운 판타지물 같아. 거대한 시스템을 부수거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지. 반면 여돌들은 어때? 아이브는 괴물과 싸우지 않아. 대신 거울 속의 나와 사랑에 빠지지. 르세라핌도 비슷해. 세상의 시선 따윈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이야기해. 남돌들은 외부의 적과 직접적으로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여돌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차이를 알겠지? 어느 쪽이 더 좋다거나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물론 모든 그룹이 그렇다는 건 아냐. 에스파 같은 여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에스파가 '쇠맛'을 내는

'다른' 매력으로 인기를 얻은 걸 생각해 봐. 그들이 다를 수 있었던 건 그런 여돌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잖아. 그동안 왜 이런 쇠맛의 여돌은 없었던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29~30쪽〕

1. 본문을 읽고, 남돌과 여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차이를 골라 보세요.

① 남돌은 힙합을, 여돌은 발라드를 부른다.
② 여돌은 주로 전쟁을 벌이는 콘셉트가 많다.
③ 남돌은 풋풋한 사랑이나 동화 같은 콘셉트를 주로 한다.
④ 남돌은 외부의 적과 싸우고, 여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한다.

2. 글쓴이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아이돌 세계관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남돌의 노래가 여돌보다 인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③ 여돌은 액션을 못하기 때문이다.
④ 판타지 세계관을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3. 남자아이돌 뮤직비디오 한 편과 여자아이돌 뮤직비디오도 한 편을 골라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음 기준을 참고해 정리하며 차이점을 살펴 보세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이미지나 분위기를 사용하는가?
-분위기와 가사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4. 만약 내가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을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나요? 아이돌이 성별과 관계없이 다른 콘셉트와 이미지를 가진다면 어떤 콘셉트를 할 수 있을까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관을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5. 본문의 내용에 공감하나요, 공감하지 않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

6. "남돌은 용감하게 세상과 싸우고, 여돌은 아름답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같은 이미지가 반복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진다.
② 성별에 대한 고정된 기대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③ 아이돌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된다.
④ 모든 아이돌이 같은 세계관을 사용하게 된다.

7. 다음 광고에서 알 수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서 적어 봅시다.

2장. 외모지상주의가 삼킨 케이팝 월드 : 외모지상주의에 대하여

혹시 SNS에서 '프로아나'(Pro-ana)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어? '~에 찬성한다'는 뜻의 'Pro'와 '거식증'을 뜻하는 'Anorexia'를 합친 말인데, 이 말은 놀랍게도 깡마른 몸을 만들기 위해 거식증을 동경하고 앓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뜻해.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개말라'(아주 마른 몸),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라는 단어와 함께 마른 아이돌의 사진을 '다이어트 자극짤'로 올리는 거야.

화려한 무대 위 아이돌은 10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 동경이 때로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 많은 청소년이 아이돌의 극단적인 식단을 따라 하며 건강을 해치거나, 그들처럼 마르지 않은 자신의 몸을 미워하게 되거든. 실제로 아이돌이 컴백 전에 한다는 '물 단식'(물만 마시는 것), '하루 한 끼 샐러드' 같은 식단이 유튜브나 틱톡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지.

하지만 단지 어떤 트렌드라고 하기엔 상황이 꽤 심각해. 실제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몸과 마음의 병을 얻는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최근 5년간 섭식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식이장애를 겪는 10대 여성의 거식증이 97.5% 증가했다고 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야. 병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이 정

도라면,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끙끙 앓거나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을 거야. 거식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의 하나로, 식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된 상태에서 마르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 또는 살찌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질환이야. 단순히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최소한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을 지속적으로 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사망하는 일도 있어. 거식증이 생기면 치료도 간단하지 않아. 감기처럼 몇 번 약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거든. 사실 위험도가 정말 높은 질환이야.
왜 이런 질병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도 연결돼. '예쁜' 몸에 대한 강박과 불안, 이 사회에서 가하는 압박, 마른 몸엔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조금만 그 몸에서 벗어나면 살쪘다고 비난하는 것, 이런 구조 안에서 상처 받지 않기란 어렵거든. 그런데 사실 여러 아이돌, 특히 여돌들 또한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아이돌들의 몸매 또한 이 구조 속에선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더 심각한 건, 이런 섭식장애의 문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게 다이어트로 예쁘고 날씬한 몸이 된 아이돌의 모습이야.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게 되면, "아이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살 빼야겠다" "저 몸매가 정상이지. 나는 너무 뚱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아이돌을 보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지. 화면 속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 버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돼. 그리고 그런 몸매가 쉽게 만들어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기도 해. "너도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저런 몸을 유지하는데, 넌 왜 못해?" 이런 말들을 타인에게 무신경하게 내뱉게 될 수도 있어. 극단적 다이어트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강요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야. (43~45쪽)

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식증'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 써 보고, 단어에 대한 느낌도 써 보세요.

거식증: _____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느낌 혹은 단어 3가지

(　　) (　　) (　　)

2. 본문을 읽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를 골라 보세요.

① 아이돌의 화려한 모습과 마른 몸이 이상적인 기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들은 모두 건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③ 다이어트는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섭식장애가 유행이기 때문이다.

3. 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① 마른 몸에 대한 환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아이돌 역시 외모 평가와 압박 속에서 섭식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③ 극단적 다이어트의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결과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④ 거식증은 심각한 질환이며 치료가 쉽지 않다.

4. 글쓴이는 왜 섭식장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함께 써 봅시다.

5. SNS나 유튜브에서 접한 다이어트 콘텐츠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그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6. 만약 건강한 몸에 대한 캠페인을 만든다면 어떤 문구를 써 볼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써 봅시다.

3장. 좋아하니까, 응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 소비자주의에 대하여

어떤 팬들은 유사연애 때문이 아니라 아이돌 연애 금지는 정말 내 최애를 위한 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 아이돌로서의 커리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연애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낸 소비자이기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굿즈를 사고, 앨범을 사고, 밤낮으로 스트리밍을 돌려서 음악 방송 1위로 만들었는데 열애설이 나면 아이돌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 또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아이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쏟은 돈과 시간, 체력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화를 내는 거지. 이건 다시 소비자주의와도 연결돼. 내가 열심히 만들거나 밀어 주고 있던 '상품'에 문제가 생겨 버렸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건 사실 아이돌을 위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린 아이돌이 회사의 요구와 산업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해. 사실상 '항상 팬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노동자라는 걸. 아이돌은 웃고 싶지 않은 날에도 무대에서 밝게 웃어야 하고, 팬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다가가야 해.

연애를 해도 숨겨야 하고, 들키면 사과까지 해야 해. 팬이라고 하면 부탁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지.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범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고 비난을 받는 건, 결국 산업 구조가 만들어 낸 '팬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는 규범 때문이야.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아이돌이 연애해도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아이돌에게 무한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여야 하지 않을까? 아이돌의 진짜 감정과 무관하게 팬을 위해 특정한 태도와 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팬인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냐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사생활 없는 삶을 살면서 연애도 숨겨야 ‘바람직한 아이돌’이 된다는 압박을 받는데다가, 나 또한 아이돌이 나에게만 평생 헌신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말이야. 팬으로서 우리는 늘 이런 산업 구조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이돌 또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89~90쪽)

1. 위 글에서 설명하는 ‘소비자주의’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팬들에게 정성껏 팬 서비스를 하는 것
② 물건을 아껴 쓰려는 생활 습관
③ 돈을 지불했으니 상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④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

2. 글쓴이는 왜 아이돌을 ‘노동자’라고 표현했을까요?

① 아이돌도 회사와 산업 구조 속에서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② 아이돌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③ 아이돌은 팬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④ 아이돌은 춤과 노래를 하기 때문이다

3. “팬이 돈과 시간을 썼으니 아이돌의 연애를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4. 만약 여러분이 아이돌 산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규칙이나 분위기를 만들고 싶나요? 아이돌과 팬이 서로 건강하게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상상하며 써 봅시다.

5. 소비자주의란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과 요청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모습을 보고, '요청할 수 있는 일'에는 O를, '요청할 수 없는 일'에는 X로 표시해 봅시다.

(　　) 구매한 물건이 훼손됐을 때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
(　　) 판매자가 파는 상품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
(　　) 판매자에게서 정당하게 구입한 상품을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것
(　　) 공연 중 심각한 음향 사고가 일어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
(　　) 아이돌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

4장. 아이돌도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무대 위에서 반짝이고 노래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만 보면, 아이돌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화려한 꿈속 세상을 보여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어. 아이돌도 결국 일하는 노동자라는 점이야.

아이돌은 넓게 보면 예술가 범위에, 조금 더 좁게 보면 연예인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특수한 점이 하나 있어. 케이팝 산업 내에서의 아이돌은 단지 춤과 노래, 무대에서의 매력이 빛나야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외 많은 걸 갖추길 요구받거든. 외모와 몸매, 패션 센스도 좋아야 하고 성격과 말투, 팬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다정하고 친절해야 해. 게다가 팬들과는 진정성 있는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하지. 아이돌은 자신의 거의 모든 면모를 공개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모든 게 상품화돼. 그러니까 아이돌은 단순한 '예술가'나 '연예인'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노동으로 소모되는 직업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돌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무대 위 화려한 이미지와 '사랑받는 존재'라는 상징성에 가려져, 아이돌이 감정까지 포함해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내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아. 게다가 그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돈을 버는 '스타'라는 지점도 그들이 노동자라는 점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야. 이는 아이돌의 화려하고 멋있는 부분을 주로 조명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돌도 분명히 일하는 사람, 노동자야.

…

아이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아이돌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아. 또한 그들이 취약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아이돌도 회사와 계약서는 쓰지만 앨범·공연 수익에서 제작비, 홍보비, 의상비 등을 공제하고 난 뒤에야 수익이 배분돼. 그래서 데뷔해도 몇 년간은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해. “수익 분배를 몇 년 차에 받았냐”는 아이돌의 성공을 가늠하는 말로도 쓰이지. 아이돌은 하루 열몇 시간씩 연습하고, 방송·팬미팅·콘텐츠 촬영이 이어져.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 미디어 플랫폼도 많아져서 올려야 하는 콘텐츠는 점점 불어나. 시도 때도 없이 영상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해야 팬들에게 ‘효자효녀’로 칭찬받을 수 있지. (95~96, 100쪽)

1. 글 속에서 “존재 전체가 노동으로 소모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① 아이돌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외모, 성격, 말투까지 관리해야 한다.
② 아이돌은 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③ 아이돌은 무대 밖의 모습까지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④ 아이돌은 무대에서 노래와 춤만 잘하면 되며, 그 외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2. 다음 중 아이돌의 노동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제작비와 홍보비 등을 제외한 뒤 수익이 배분되기도 한다.
② 콘텐츠 업로드와 팬 소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③ 데뷔 직후부터 대부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는다.
④ 긴 연습 시간과 촬영 일정이 이어지기도 한다.

3. 아이돌이 팬들에게 ‘효자효녀’라는 말을 듣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지도 함께 써 봅시다.

4. 아이돌을 노동자로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5.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보장받는 핵심 권리는 '정당한 임금 수령, 최저임금 보장, 근로 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돌이 된다면,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무엇인가요? 그건 보통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권리와 같나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적어 보세요.

보장받고 싶은 권리

다른 노동자들과 다른 점

5장. 덕질하면서 '정치적' 목소리 내면 안 돼요? : 정치에 대하여

그거 알아? 아이돌 덕질 문화에서 '포카(포토카드) 수집'이 환경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그런데 요즘 덕질하면서 포카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도 '포카 탑꾸'(탑로더 꾸미기)를 했거든. 탑로더를 사고 스티커를 사면서 '또 이렇게 결국 쓰레기가 될 무언가를 사는 게 맞나?'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 이의 포카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라는 욕망에 져 버린 거지. 게다가 포카를 다 모으고 싶어서 필요도 없는 앨범을 여러 장 샀어. 이런 내가 '포카 수집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나쁠까'를 고민하는 게 다소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말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 자신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해.

케이팝 아이돌 팬들이 포카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왜일까? 사실 단지 포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만은 아니야.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이 등장했을 때부터 팬들은 늘 무언가를 수집해 왔어. 그건 앨범이나 잡지이기도 했고, 사진 자체이기도 했어. 포카 수집은 그러한 팬들의 덕질 행위 중 하나일 뿐이긴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부피도 크고 문제적인 굿즈도 있을 텐데 고작 포카가 뭐라고, 그것 좀 모으는 게 큰 잘못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 사실 그냥 정확히 포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엔 조금 더 복잡한 내막이 있어.

지금 포카를 둘러싸고 문제로 지적되는 건 사실 팬들의 덕질이라기보다 팬들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케이팝 산업의 구조야. 랜덤 포카가 아이돌들의 앨범에 들어가면서, 케이팝 산업은 팬들에게 앨범을 여러 장 사라고 부추기기 시작했거든. 예를 들어 보자. 아이브 멤버는 6명이고 나의 최애는 유진이일 경우, 유진이 포카를 갖기 위해선 앨범을 하나만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만 사면 유진이 포카가 나올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물론 주변에 아이브를 좋아해서 앨범을 산 친구가 있다면 서로 원하는 포카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가진 포카가 상대가 원하는 거고, 상대가 가진 포카가 내가 원하는 것일 때만 가능하기에 유진이 포카가 '당첨'될 때까지 앨범을 여러 개 사게 돼.
그런데 심지어 아이돌 기획사들은 앨범에 넣을 더 많은 포카를 만들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6명의 6가지 버전 포카를 만드는 거지. 그럼 총 포카의 수는 36개. 사야 하는 앨범 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사실 36장을 산다고 다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랜덤이니까 똑같은 포카가 여러 장 나올 수도 있잖아? 포카 하나를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필요 없는 앨범을 사게 되는 거야. 돈도 많이 써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쓸데없이 많이 구매한 앨범들의 이후 처리도 곤란해져.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지. 포카 하나는 정말 작은 쓰레기일지 몰라도 수십 장, 수백 장의 앨범은 큰 쓰레기가 돼. 그러니까 사실 포카 문제는, 기획사들의 상술 문제, '앨범을 몇 장이나 팔았냐'는 실적, 숫자가 성공을 의미하는 사회의 인식 문제이기도 해. (116~117쪽)

1. 위 글에서 말하는 '포카 문제'가 단순히 포토카드 수집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팬들이 포카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포카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③ 팬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④ 포카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앨범을 소비하고,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포카를 수집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② 팬들은 예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아이돌 관련 물건을 수집해 왔다.
③ 포카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없다.
④ 앨범을 한 장만 사도 원하는 포카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3. 글쓴이는 왜 스스로를 "모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① 포카를 좋아하면서도, 모두 버렸기 때문이다.
②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데 앨범을 샀기 때문이다.
③ 환경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포카와 굿즈를 계속 소비했기 때문이다.
④ 포카를 전혀 모으지 않기 때문이다.

4. 다음 중 기획사가 팬들에게 여러 장의 앨범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앨범 가격을 낮춘다.
② 랜덤 포카와 여러 버전의 포카를 만든다.
③ 포카를 무료로 나눠 준다.
④ 앨범마다 모든 멤버의 포카를 넣는다.

5. 케이팝 산업이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팬의 입장에서 기획사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적어 봅시다.

6. 다음 중 팬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굿즈 제작을 요구하거나 굿즈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한다.
② 원하는 포카가 나올 때까지 앨범을 구매한다.
③ 아이돌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퍼뜨려, 평판을 만든다.
④ 다른 팬들의 소비를 비난한다.

6장. ‘모두’가 즐기는 케이팝 시대 : 문화적 전유에 대하여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는 문화적 도용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집단(주로 권력이나 자원이 더 많은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주로 소외되거나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집단)의 문화를, 적절한 이해나 인정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쓰는 걸 말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타문화의 사용이 무례하거나 착취적이고, 편견을 만들며,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만약 영국 출신의 백인 디자이너가 한복을 입고 일본의 나막신을 신은 백인 모델들을 무대 위에 올리고 태국인들이 하는 손 합장 인사까지 시키는 패션쇼를 한다면 어떨까? 그리곤 이것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디자인이라고 말한다면 말야. 후폭풍이 아주 거세지 않을까? 일단 아시아 각 국가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패션쇼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겠지. 설사 그 디자이너가 아시아 문화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한복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하고 그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보이잖아. 그리고 각 나라의 인사 방식은 모습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각 나라의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섞어 버렸어. 그렇다는 건 그 디자이너가 아시아 문화에 굉장히 무지했으며, 백인으로서 아시아에 가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 결국 그 디자인은 문화적 전유·도용일 수밖에 없어.

드레드록스, 아프로 등의 헤어 스타일도 그런 문화적 전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힙합 혹은 힙합 요소, 스타일이 들어간 음악, 무대를 하니까 그런 헤어 스타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냐. 다만 우리에게 한국 문화가 중요하듯이 타문화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거지. 드레드록스는 흑인 문화권에서 단지 그냥 헤어 스타일이 아니고 다양한 맥락이 있거든. 이 헤어엔 그들의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고, 서구권의 식민주의, 노예제 등의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담겨 있어.
거기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단정하게 머리를 펴지 않고 이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당하기도 하거든.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헤어 스타일이 그들의 곱슬머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런 점에서 사실 그런 곱슬머리가 아닌 이들이 드레드록스 헤어 스타일을 했을 때 오히려 관리나 유지가 더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 문화권에서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한국인 아이돌이나 가수가 힙합 무대를 한다는 이유로 드레드록스 헤어 스타일을 한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어. '힙합-흑인-드레드록스'라는 단순 공식을 재현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기도 하고, 타문화를 어떤 '이미지'로만 이용한 거니까. 아직도 흑인들은 그 머리 때문에 차별 받는데, 한국 아이돌이 단지 '힙(Hip)해 보이기 위해서' 그 머리를 하고, 대중들에게 멋지다고 평가 받는 상황이 흑인들에겐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 머리 스타일은 결코 '패션'이 아닌데 말이야.

1. 본문에서 설명하는 '문화적 전유'의 뜻을 써 보세요.

문화적 전유란?

2. 본문에서 등장한 패션쇼 사례가 비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패션쇼에 음악이 없었기 때문이다.
② 아시아 각 문화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모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④ 전통 의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3. 글쓴이는 왜 "힙합-흑인-드레드록스"라는 공식을 문제라고 말했을까요?

① 힙합 음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② 드레드록스가 유행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③ 특정 문화를 단순 이미지나 고정관념으로 소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④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4. 타문화를 전유하지 않고 존중하려면 어떤 태도와 방법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5.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케이팝 문화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6. 문화적 전유를 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를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왜요, 아이돌이 어때서요?> 독서지도안 정답지

[책 속으로]

1장. 여돌과 남돌은 뭐가 달라요?

1. ④
2. ①
3. (예시)
 에이티즈는 감정이 통제된 세상에서 정부군에 맞서 싸우는 해적이 되어 혁명을 일으킨다.
 아이브는 괴물과 싸우는 대신 거울 속의 나와 사랑에 빠진다.
4. (예시)
 남돌: 어느 숲의 요정이 되는 콘셉트도 재미있을 것 같다. 요정이라고 해서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건 아니고, 신비스럽고 귀여운 점이 부각되면 좋을 것 같다.
5. (예시)
 공감한다.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콘셉트도 많이 나오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
6. ②
7. (예시)
 육아 활동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2장. 외모지상주의가 삼킨 케이팝 월드

1. 식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된 상태에서 마르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 또는 살찌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질환.

(예시)
 (배고픔) (다이어트) (아이돌)
2. ①
3. ①
4. (예시)
 글쓴이는 사람들이 마른 몸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이돌의 다이어트 결과만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섭식장애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나도 외모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자신을 싫어하게 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예시)
 원푸드 다이어트가 기억에 남는다.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몸무게를 빼는 다이어트인데, 따라 한다면 골고루 먹지 못해 영양의 불균형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예시)
 마른 몸보다 건강한 몸, 비교보다 존중!

3장. 좋아하니까, 응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1. ③
2. ①
3. (예시)
   나는 팬이 돈과 시간을 썼다고 해서 아이돌의 연애를 반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팬 활동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지, 아이돌의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예시)
   나는 아이돌의 연애나 사생활을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 문화로 바꾸고 싶다. 또한 팬들이 아이돌을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팬들은 그 활동을 응원하되 사생활은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면 서로에게 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5. O, O, X, O, X

4장. 아이돌도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1. ④
2. ③
3. (예시)
   아이돌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팬들과 자주 소통해야 '효자효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문화는 팬들이 아이돌과 더 가깝게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기획사도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
4. (예시)
   나는 아이돌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돌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외모 관리, 촬영, 방송 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며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또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예시)
   -내가 아이돌이라면, 꼭 일하는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일을 한다. 밤샘 촬영도 부지기수다. '보통'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5장. 덕질하면서 '정치적' 목소리 내면 안 돼요?

1. ④
2. ②
3. ③
4. ②
5. (예시)
   기획사는 팬들이 원하는 포카를 얻기 위해 앨범을 여러 장 사지 않도록 랜덤 포카 판매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굿즈 제작을 줄여야 한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

하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6. ①

6장. '모두'가 즐기는 케이팝 시대

1. 문화적 도용이라고도 한다. 특정 집단(주로 권력이나 자원이 더 많은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주로 소외되거나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집단)의 문화를, 적절한 이해나 인정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쓰는 걸 말한다.
2. ②
3. ③
4. (예시)
   타문화를 존중하려면 먼저 그 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사용하기보다, 그 문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5. (예시)
   -나는 아직은 모든 사람이 케이팝 문화를 불편함 없이 즐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팬들은 언어의 장벽을 느낄 수 있고, 장애인들은 공연장이나 팬 행사를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접근성 개선, 다양성 존중 등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케이팝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이 함께 즐기고 있고, 기획사들도 다양한 언어 자막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으므로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예시) (자유양식)